

#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및 자녀성적의 영향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School-aged Children

: Effects of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School Grades of Children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복지심리학전공

부 교 수 정 명 숙\*\*

Dept. of Psychology & Welfare, Kkottongnae Hyundo Univ. of Social Welfare

Associate Professor : Chung, Myung-Sook

---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perceived by mothers of school-aged children. The effects of demographic variables(including school grades of children) on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were also investigate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ego-resilience of mothers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predictive power on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more ego-resilient the mothers were, the less parenting stress was perceived. Second, social support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lleviating maternal parenting stress. Emotional support of spouses was particularly effective in reducing mothers' parenting stress. Third, the only demographic variable that influenced mothers' parenting stress was their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s. Finally, mothers perceived high parenting stress in relation to their children's school grades, while they perceived relatively less parenting stress concerning their children's temperament or the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

▲주요어(Key Words) : 양육(child rearing),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자녀성적(school grades of children)

## I. 서 론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체계가 축소되면서 부부들만의 협력으로 자녀양육을 수행해야 하게 됨에 따라 부모역

할에 대한 부담감과 양육스트레스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자녀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돌보는 일과 관련하여 신체적 요구, 부부관계의 긴장, 정서적 부담, 사회적·재정적 기회비용과 제한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난다(전춘애·박성연, 1998). 이런 스트레스는 부모로 전환하는 시기에 누구나 경험하는 스트레스인데, 매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누적된다는 점에서 주요생활 사건보다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Abidin, 1990a). 특히 자녀양육의 주된 책임을 맡고 있는 어머니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의 복지뿐 아니라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녀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

\* 이 논문은 저자가 지도했던 대학원생 김영순의 2007년도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 자료를 본인의 동의 하에 분석에 사용하였음.

\*\* 주 저 자 : 정명숙 (E-mail : mchung@kkot.ac.kr)

작용할 수 있으며 가족문제까지 발전될 수도 있다(Silver et al., 2006).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의 어머니, 이혼을 했거나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어머니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어머니들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예, 문혁준, 1999; 박수경, 2002; 안인순, 2002). 그러나 부모에게는 양육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머니들이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송미혜 등, 2007), 이러한 연구는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남현아 · 양수, 2005).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자녀를 둔 일반가정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종래의 양육스트레스 연구는 영유아자녀의 어머니가 겪는 양육스트레스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고(예, 송미혜 등, 2007; 오재연 · 유구중, 2007; 유우영 등, 1998),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어머니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는 영유아기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특히 학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강희경, 2003; 윤기영, 1997). 더욱이 초등학교 5, 6학년부터는 학교에서 부과되는 과제가 많아지면서 자녀들이 내적 긴장이 높아질 뿐 아니라 환경적 압력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임상희, 2006). 따라서 이 시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더 어린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bidin, 1990a; Crnic & Greenberg, 1990; Dumas & Lafreniere, 1993; Secco & Moffatt, 2003).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자신의 특성뿐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의 특성과 관련한 요인, 가족상황과 관련한 요인, 그리고 여러 지지체계로부터 받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포괄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 1.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령기는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감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인으로서의 기초를 닦는 시기이다. 따라서 부모는 아동이 학교와 또래관계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근면성과 건강한 자아상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줄 필요가 있다(남현아 · 양수, 2005). 그러나 이 시기에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경험하며, 자신의 정체감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등 심리적인 부담감을 경험한다(Abidin, 1990a; Webster-Stratton, 1988). 특히 전업

주부의 경우에는 매일 반복되는 양육과 가사에 온전히 얽매이게 되면서 자신의 욕구는 억제하거나 절제해야 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결혼에 대한 회의감 및 역할혼동을 경험할 수 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는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간 지속될 경우 우울 및 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고 신체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노현정, 2004).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여 공교육을 받게 될 때 부모는 지금까지 해오던 부모로서의 역할 외에 학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된다.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 일정 부분 양육부담을 덜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학부모 역할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정립과 적응, 학교환경에의 적응, 자녀의 학업성취 및 사교육 등과 관련하여 유아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육스트레스를 겪게 되며(강희경, 2003; 윤기영, 1997), 이로 인해 공교육체제로 진입한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부모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다. 더욱이 학령기의 발달특성으로 볼 때 학령기도 영유아기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부모의 부단한 보살핌과 양육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역할 수행에 따르는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과 같은 제반 어려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부분으로, 인간의 정상적 발달과정과 가족생활에 거의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요소라 할 수 있다(Laster, 1981).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는 어린 자녀가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면서 발달과업을 완수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주변환경의 특성이나 자녀의 특성과 관련하여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는 자녀의 발달에 여러 경로로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거부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양육을 하게 되며(박성연 등, 1996), 그 결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떨어지고(류우영 · 이숙, 1998; Abidin, 1992; Crnic & Greenberg, 1990) 문제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Dumas & Gibson, 199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또 자녀의 언어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Magill-Evans & Harrison, 2001). 양육스트레스가 축적되면 일관성없는 훈육(Lempers, Clark-Lempers, & Simons, 1989), 부모—자녀 간 강압적 상호작용(Wahler, 1980), 심지어 아동학대(우희정 · 최정미, 2002)를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발달에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또 그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므로써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머니가 겪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그때마다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Block은 이러한 모든 노력을 가리켜 자아탄력성이라 불렀다(Block & Kremen, 1996).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통제수준을 조절하여 적응하는 능력(Block, 2002; Block & Block, 1980), 내·외적 긴장상황에 맞서 융통성 있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Klohn, 1996),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타고난 성격자원(유성경 등, 2004)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학자마다 정의는 이렇듯 다양하지만, 자아탄력성이 환경에 대한 인간의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조절능력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점은 공통적이다(고민숙, 2002; 김미옥, 2005). Klohn(1996)은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소로 낙관적·생산적·자율적인 활동력,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과 온정성, 능숙한 자기표현력을 제시한 바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이나 우울에 취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며, 자신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욕구에 맞춰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며, 스트레스의 작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환경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박연성·현은민, 2007; 박현진, 1997).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외부환경에서 주어지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다(장경문, 2003; 장휘숙, 2001; Tellegen, 1985).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자녀양육과 관련해 많은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상황에서도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대다수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연구들은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지각과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자아탄력성이 높은 초등학교생들은 시험스트레스(김교현 등, 2005), 학업문제 스트레스와 가족관계 스트레스(정소희, 2004), 학대경험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한정은, 2005) 등 각종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초등학교생(임상희, 2006)과 고등학교생(박연성·현은민, 2007; 이후승, 2003) 모두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적게 지각할 뿐 아니라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

성인대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부모의 자아탄력성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고혜진(2005)은 2~6세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어머니들이 자아통제 및 적응능력이

높아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Margalit과 Kleitman (2006)도 발달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이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뿐 아니라 가족관계도 더 화목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양육스트레스 지각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게 해준다(Cobb, 1976). 사회적 지지는 구조적 지지와 기능적 지지의 두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경은, 2004). 구조적 지지는 지지의 출처를 가리키는 것으로 크게 공식망과 비공식망의 두 가지가 있다. 공식망은 믿고 상의할 만한 전문가(성직자, 사회복지사, 상담자, 교사)와 지역사회 서비스(학부모 모임, 의사) 등이며, 비공식망은 친척, 이웃, 직장동료, 친정식구, 시댁식구를 예로 들 수 있다. 기능적 지지는 지지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의 셋으로 구분한다(Collins et al., 1993; Jacobson, 1986). 도구적 지지는 집안일을 대신해주거나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등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정서적 지지는 양육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며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등을 포함하며, 정보적 지지는 양육과 관련하여 유익한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까지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의미있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감소될 수 있으며(김경은, 2004; 김기현, 1990; 문혜련, 1999; 박지원, 1985; 배경희, 2007; 유우영 등, 1998; 이은혜, 1997; Belsky, 1984; Crnic et al., 1983; Koeske & Koeske, 1990; Lee et al., 2007; Melson et al., 1993; Quittner et al., 1990; Secco & Moffatt, 2003; Silver et al., 2006; Skok et al., 2006; Wanamaker & Glenwick, 1998), 그 결과 어머니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이 증진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Belsky & Kelley, 1994; Cohen & Wills, 1985). 그러나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어머니들이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들은 대부분 여러 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않고 있다. 또 일부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예컨대 양육행동(신숙재, 1997), 양육효능감(송연숙·김영주, 2007; 송미혜 등, 2007), 결혼만족도(전춘애·박성연, 1996)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체계가 제공하는 여러 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들이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남편의 지지와 남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지지가 영향력이 다르다고 하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유우영 등, 1998; 전춘애 · 박성연, 1996; Crnic et al., 1983) 공식망과 비공식망 외에 남편을 별도의 지지체계로 삼아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 3) 인구사회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어머니 본인, 남편, 자녀, 그리고 가족상황과 관련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도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탄력성이나 사회적 지지와는 달리, 이들 변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룬 선행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① 어머니 본인과 남편 관련 변인

어머니 본인과 남편의 연령, 학력 및 직업의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일관성없는 결과를 내놓았다. 먼저 연령의 경우, 연령이 낮은 어머니들이 양육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낀다는 결과도 있지만(김리진 · 윤종희, 2000),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다(박영아, 2005; 전귀연 · 김수경, 2005). 학력의 경우에는 남편이나 어머니 본인의 학력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가 비교적 많지만(배경희, 2007; 김정 · 이지현, 2005), 학력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박영아, 2005; 전귀연 · 김수경, 2005). 직업의 경우에도 전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결과(송미혜 등, 2007; 안지영, 2001; 허영림 · 윤혜진, 2002)와 취업여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김정 · 이지현, 2005; 박영아, 2005; 전귀연 · 김수경, 2005)가 혼재한다. 취업모 중에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어머니들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어머니들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영아, 2005; 허영림, 윤혜진, 2002).

#### ② 자녀관련 변인

자녀관련 변인으로는 자녀의 수와 성별, 자녀의 성적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자녀의 수와 성별의 경우 연구들 간에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먼저 자녀수의 경우, 여러 연구가 자녀가 많을수록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김리진 · 윤종희, 2000; 남현아 · 양수, 2005; 이인숙, 1994). 이 결과는 자녀양육이 심리적인 부담감과 재정적 뒷받침, 시간부족, 활동제약 등의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자녀수의 증가가 스트레스를 심화시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수가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김기현, 2000; 문혁준, 2004).

자녀성별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상당수가

남아의 어머니가 여아의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박영아, 2005; 신숙재 · 정문자, 1998; 우희정 · 최정미, 2002; 전귀연 · 김수경, 2005). 그러나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결과도 있고(문혁준, 2004),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송미혜 등, 2007; 전귀연 · 김수경, 2005).

반면에 자녀의 성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자녀성적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대상 연구가 많은데, 학업성적은 청소년 자신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한다(옥선화 등, 1991). 여러 연구들이 어머니들은 청소년자녀의 성적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고인순 · 김정신, 2001; 김정신, 1994, 1995; 김명자 · 박성연, 1991; 김양희 · 전세경, 1989). 본 연구의 대상인 학령기 아동은 아직 수험생만큼의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학업과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들어섰으므로 어머니가 아동의 학교성적에 대해 민감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입시열풍이 뜨거운 우리나라 실정에서 중학교 입학 앞둔 초등학교 5, 6학년의 경우 자녀의 학교성적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③ 가족상황 변인

선행연구들 간의 결과의 불일치는 가족상황 변인인 가족형태나 가족소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연구가 가족형태에 따라 스트레스의 양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김기현, 2000; 김미현 등, 1993; 남유리, 1989),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도 있고(이정우 · 장병옥, 1987), 확대가족이 전통적 가족규범 속에서 살던 시어머니와 서구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은 며느리 간에 가족의식의 불일치에서 생겨나는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양인희, 1988; 최승순, 1987). 가족소득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어머니들이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김경신, 1995; 김경은, 2004; 박영아, 2005; 편은숙, 2004), 소득수준이 중간정도일 때 양육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결과(송미혜 등, 2007), 그리고 소득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없다는 결과(김기현, 2000; 김리진 · 윤종희, 2000; 전귀연 · 김수경, 1995) 등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의 결과로 볼 때 자녀의 학교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의 효과는 미지수이다. 연구마다 결과가 들쭉날쭉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들 변인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남편, 비공식망 및 공식망의 도구적, 정서적, 정보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어머니 본인과 남편의 연령, 직업, 학력; 자녀의 수, 성별, 학교성적; 가족형태와 소득수준)이 양육스트레스에 각각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도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지역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학생을 통해 각 가정으로 보내어 어머니가 작성하도록 했으며, 작성한 설문지는 다시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560부를 회수하였는데, 그 중 부실 기재된 11부를 제외하고 총 54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b)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신숙재(1997)가 수정·보완한 척도에 의해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9문항)는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자녀와 사이가 가깝지 않다고 지각하는 등 자녀와의 일상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8문항)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다루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마지막 요인인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3문항)는 자녀의 공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녀가 자기 일을 스스로 하지 않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신뢰도계수는 .81(관계관련 스트레스), .76(기질관련 스트레스), 그리고 .66(학습기대관련 스트레스)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2) 자아탄력성

Block과 Block(1980)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구자은(2000)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정적인 진술문항은 역산하게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의 신뢰도계수는 .7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Tracy와 Whittaker가 개발한 Social Network Map을 김경은(2004)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들이 남편, 비공식망(시댁식구, 친정식구, 이웃, 친구), 공식망(성직자, 사회복지사, 교사 등의 전문가; 학부모모임이나 의사 등의 지역사회서비스)으로부터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를 각각 어느 정도 받는지 응답하게 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지지 척도는 각 분류별로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뢰도 분석을 생략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1>에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 대부분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36.7%로 어머니의 과반수 이상이 직업이 있었는데, 어머니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단순생산직(40.4%)이 대부분이었고 사무연구직은 15.8%에 그쳤다. 반면에 남편의 직업은 단순생산직이 40.3%였고 사무연구직이 50%로, 어머니의 직업에 견줘 관리직, 중규모 이상 사업가, 연구전문직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

1)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직업을 사무연구직, 단순생산직, 전업주부, 기타의 네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사무연구직은 사무직, 연구전문직, 관리직, 중규모이상 사업가, 학생, 공무원을 포함했으며, 단순생산직은 농·임·어업, 도소매업, 피고용서비스, 생산직, 단순노동자를 포함하였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분포

항 목	구 분	빈도(%)	계	항 목	구 분	빈도(%)	계
본인연령	35세 미만	30( 5.5)	543	남편학력	중졸 이하	18( 3.4)	532
	35~40세	229(42.2)			고 졸	223(41.9)	
	40~45세	243(44.8)			대 졸	242(45.5)	
	45세 이상	41( 7.6)			대학원졸 이상	49( 9.2)	
본인직업	단순·생산직	218(40.4)	539	자녀성적	상	229(41.9)	547
	사무·연구직	85(15.8)			중	290(53.0)	
	주 부	198(36.7)			하	28( 5.1)	
	기 타	37( 6.9)		자녀성별	남	278(52.0)	535
본인학력	중졸 이하	16( 3.0)	여		257(48.0)		
	고 졸	327(60.4)	자녀수	1명	39( 7.3)	537	
	대 졸	185(34.2)		2명	381(70.9)		
	대학원졸 이상	13( 2.4)		3명	100(18.6)		
		4명		17( 3.2)			
남편연령	35세 미만	14( 2.6)	533	가족소득 (만원)	200 미만	99(18.1)	546
	35~40세	97(18.2)			200~300	171(31.3)	
	40~45세	308(57.8)			300~400	142(26.0)	
	45세 이상	114(21.4)			400 이상	134(24.5)	
남편직업	단순·생산직	214(40.3)	531	가족유형	핵가족	443(81.3)	545
	사무·연구직	276(52.0)			대가족	65(11.9)	
	주 부	0		한부모	37( 6.8)		
	기 타	41( 7.7)					

<표 2> 자아탄력성 고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점수의 평균(표준편차)과 다변량분석의 결과 (N=549)

집 단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 관련 스트레스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	전체 양육스트레스
고득점	2.12(.60)	2.24(.55)	3.68(1.23)	2.22(.47)
저득점	2.61(.74)	2.88(.58)	4.42(1.41)	2.78(.53)
F	-35.40***	-78.13***	-19.81***	-78.04***

\*\*\*p<.001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60.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대졸이 20.9%, 전문대졸 13.3%였으며, 중졸 이하(3%)나 대학원졸(2.4%)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가족소득수준은 200~300만원이 31.3%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원이 26.0%로, 과반수 정도의 가정이 월 200~4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80%를 넘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어머니가 보고한 자녀의 성적은 상과 중에 해당하는 학생이 각각 41.9%와 53%였고, 하에 해당하는 학생은 5.1%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성적에 따른 집단을 세 집단으로 나누지 않고, 중과 하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두 집단으로 분석하였다. 자녀 수는 약 70%의 가정이 자녀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성별은 남아가 52%로 여아보다 약간 더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 2. 자아탄력성과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전체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2.30점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 하위영역스트레스 중에서는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 점수(3.81)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자녀관계 관련 스트레스 점수(2.33)였으며,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 점수(2.20)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 \geq 4.85, p < .001$ ).

자아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어머니가 받는 양육스트레스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중앙값보다 1표준편차 높은 값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값을 갖는 집단(고득점집단)과 중앙값보다 1표준편차 낮은 값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값을 갖는 집단(저득점집단)으로 나누고, 이 두 집단 간에 양육스트레스 전체점수와 하위영역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다변량분석에 의해 검증하였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자아탄력성 점수의 고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어머니들이 낮은 어머니들에 비해 양육스트레스 전체 점수와 하위영역별 점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낮았다.

3.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표 3>에는 사회적 지지의 체계와 유형에 따른 점수를 제시하였다. 어머니들이 각 지지체계로부터 받는 도구적, 정서적, 정보적 지지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지유형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지지체계 모두에서 지지유형들 간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유형의 지지점수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paired samples t-tests)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남편은 도구적 지지를 가장 많이 하였고 정보적 지지를 가장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척이나 이웃 등의 비공식망은 정서적 지지를 가장 많이 하였고 도구적

지지를 가장 적게 하였으며, 공식망은 정보적 지지를 가장 많이 하였고 도구적 지지를 가장 적게 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어머니들은 도구적 지지보다는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어머니가 받는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편과 비공식망의 지지유형에 따라 중앙값보다 1표준편차 높은 값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값을 갖는 집단(고득점집단)과 중앙값보다 1표준편차 낮은 값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값을 갖는 집단(저득점집단)으로 나누어 다음, 이 두 집단 간에 양육스트레스 전체점수와 하위영역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다변량분석에 의해 검증하였다. 공식망의 경우 지지정도가 매우 저조하여 중앙값이 0점에 해당하였기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4>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남편의 지지는 지지유형에 관계없이 많이 받을수록 어머니들이 세 가지 하위영역의 양육스트레스를 모두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망 지지를 많이 받는 어머니들은 적게 받는

<표 3> 체계와 유형에 따른 사회적지지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N=549)

체 계	유 형			F	t
	도 구	정 서	정 보		
남 편	3.53(1.19)	3.39(1.28)	3.16(1.29)	30.72***	도구-정서: 2.96**, 도구-정보: 3.36**, 정서-정보: 5.32***
비공식망	2.29(.88)	2.66(.86)	2.59(.90)	67.75***	도구-정서: -8.02***, 도구-정보: -7.45***, 정서-정보: 2.80**
공식망	.90(1.25)	1.09(1.36)	1.29(1.48)	29.13***	도구-정서: -3.36**, 도구-정보: -6.76***, 정서-정보: -4.99***
전 체	2.24(1.10)	2.38(1.01)	2.35(1.21)	47.44***	도구-정서: -2.92**, 도구-정보: -2.47*, 정서-정보: 1.03

\*\*p<.01, \*\*\*p<.001

<표 4> 사회적 지지의 체계와 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점수의 평균(표준편차)과 다변량분석의 결과

체계 유형 집단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 관련 스트레스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	전체 양육스트레스	
남 편	도 구	고득점	2.22(.61)	2.35(.60)	3.78(1.25)	2.23(.50)
		저득점	2.47(.67)	2.53(.58)	3.99(1.32)	2.39(.52)
	F		4.16*	11.83**	4.73***	10.94**
	정 서	고득점	2.19(.59)	2.17(.55)	3.64(1.28)	2.17(.47)
		저득점	2.41(.68)	2.52(.59)	3.97(1.27)	2.45(.52)
	F		13.64***	47.24***	8.52**	38.20***
정 보	고득점	2.17(.59)	2.17(.59)	3.62(1.35)	2.19(.51)	
	저득점	2.30(.68)	2.47(.56)	3.82(1.21)	2.41(.50)	
F		7.47**	34.36***	4.82*	24.16***	
비공식망	도 구	고득점	2.19(.63)	2.30(.57)	3.75(1.26)	2.27(.50)
		저득점	2.27(.66)	2.43(.63)	3.87(1.33)	2.39(.54)
	F		1.47	7.61**	.93	5.18*
	정 서	고득점	2.20(.64)	2.32(.55)	3.78(1.20)	2.29(.48)
		저득점	2.28(.65)	2.44(.65)	3.88(1.40)	2.40(.57)
	F		2.20	6.13*	.29	4.64*
정 보	고득점	2.19(.62)	2.29(.57)	3.75(1.23)	2.27(.48)	
	저득점	2.27(.68)	2.43(.60)	3.87(1.35)	2.41(.55)	
F		1.52	13.26***	.39	6.94**	

\*p<.05, \*\*p<.01, \*\*\*p<.001

<표 5> 어머니본인과 남편의 직업과 학력, 자녀성적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점수의 평균(표준편차)과 다변량분석의 결과

특 성	구 분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 관련 스트레스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	전체 양육스트레스
본인직업	단순·생산직	2.21(.66)	2.35(.60) <sup>a</sup>	3.85(1.31)	2.31(.51) <sup>a</sup>
	사무·연구직	2.11(.58)	2.25(.61) <sup>ab</sup>	3.80(1.28)	2.24(.51) <sup>ab</sup>
	주 부	2.22(.63)	2.40(.58) <sup>a</sup>	3.85(1.28)	2.35(.52) <sup>a</sup>
	기 타	2.18(.76)	2.07(.49) <sup>b</sup>	3.34(1.16)	2.12(.52) <sup>b</sup>
	F	.64	3.70**	1.68	2.38*
본인학력	중졸 이하	2.61(1.02) <sup>a</sup>	2.60(.46) <sup>a</sup>	4.47(1.45) <sup>a</sup>	2.68(.52) <sup>a</sup>
	고 졸	2.23(.63) <sup>ab</sup>	2.36(.62) <sup>ab</sup>	3.91(1.30) <sup>ab</sup>	2.34(.51) <sup>ab</sup>
	대 졸	2.08(.62) <sup>b</sup>	2.25(.56) <sup>b</sup>	3.56(1.23) <sup>b</sup>	2.20(.50) <sup>b</sup>
	대학원졸 이상	2.45(.62) <sup>ab</sup>	2.37(.59) <sup>ab</sup>	3.84(.83) <sup>ab</sup>	2.43(.52) <sup>ab</sup>
	F	4.98**	2.46*	4.23**	5.57***
남편직업	사무·연구직	2.16(.60)	2.29(.57)	3.73(1.25) <sup>ab</sup>	2.26(.50)
	단순·생산직	2.23(.66)	2.37(.60)	3.94(1.29) <sup>a</sup>	2.35(.52)
	기 타	2.22(.68)	2.30(.65)	3.56(1.36) <sup>b</sup>	2.25(.57)
	F	.67	1.03	2.63*	1.99
	남편학력	중졸 이하	2.49(.86) <sup>a</sup>	2.68(.78) <sup>a</sup>	4.33(1.41) <sup>a</sup>
고 졸		2.27(.64) <sup>ab</sup>	2.39(.58) <sup>ab</sup>	4.01(1.32) <sup>ab</sup>	2.39(.50) <sup>b</sup>
대 졸		2.15(.64) <sup>b</sup>	2.28(.59) <sup>b</sup>	3.71(1.27) <sup>ab</sup>	2.25(.52) <sup>bc</sup>
대학원졸 이상		2.00(.45) <sup>b</sup>	2.18(.51) <sup>b</sup>	3.29(.98) <sup>b</sup>	2.11(.40) <sup>c</sup>
F		4.21**	3.94**	6.04**	6.84***
자녀성적	상	2.03(.59)	2.21(.58)	3.13(1.05)	2.11(.48)
	하	2.32(.65)	2.42(.59)	4.30(1.22)	2.45(.50)
	F	27.81***	15.58***	137.64***	59.37***

주. 사후검증은 Duncan test에 의한 것이며, 첨자가 다르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p<.05, \*\*p<.01, \*\*\*p<.001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관계와 관련한 스트레스는 적게 받았으나, 자녀기질이나 학습기대와 관련한 스트레스 점수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 4.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양육스트레스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어머니가 받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별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본인과 남편의 연령, 자녀의 수와 성별, 그리고 가족의 형태와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를 보면, 어머니본인의 학력과 남편학력, 그리고 자녀성적에 따라 전체 양육스트레스뿐 아니라 세 가지 하위영역스트레스 모두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남편의 학력과 자녀의 성적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Duncan test,  $p < .05$ ). 그러나 어머니본인 학력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대학원졸 이상부터는 다시 증가하여

고졸과 비슷한 정도로 양육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자녀관계 관련 스트레스가,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는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가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는 자신이 사무연구직에 종사할 때보다는 전업주부이거나 단순생산직에 종사할 때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으며, 남편이 사무연구직일 때보다 단순생산직에 근무할 때 학습기대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인구사회학적 변인,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 1)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

<표 6>에는 양육스트레스 척도들과 다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어머니 본인의 학력과 자아탄력성, 남편의 학력, 그리고 자녀의 성적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도 모두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표 6>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변인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 관련 스트레스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	전체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		-.33**	-.54**	-.26**	-.50**	
사회적지지	남편	도구지지	-.11**	-.17**	-.09*	-.18**
		정서지지	-.16**	-.26**	-.13**	-.26**
		정보지지	-.11*	-.26**	-.05	-.23**
	비공식망	도구지지	-.03	-.14**	-.09	-.13**
		정서지지	-.05	-.14**	-.05	-.12*
		정보지지	-.05	-.12**	-.04	-.10*
	공식망	도구지지	.02	-.00	-.05	.01
		정서지지	.02	-.03	-.05	-.02
		정보지지	.01	-.06	-.07	-.03
인구사회학적 변인	본인연령	.01	.03	.02	.03	
	본인직업	.00	-.03	-.05	-.01	
	본인학력	-.10*	-.10*	-.13**	-.13**	
	남편연령	-.00	.03	.04	.01	
	남편직업	.07	.01	-.02	.02	
	남편학력	-.15**	-.14**	-.18**	-.20**	
	자녀수	-.02	.01	.02	.00	
	자녀성별	.04	.08	.07	.08	
	자녀성적	-.24**	-.19**	-.52**	-.36**	
	소득수준	-.10*	-.05	-.07	-.08	
가족유형	.01	.00	-.03	.00		

\*p<.05, \*\*p<.01, \*\*\*p<.001

<표 7>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기준변인	단계	예언변인	β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F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전체 양육스트레스	1	자아탄력성	.33	.16	.16	70.40***	.96	1.05
	2	자녀성적	.30	.25	.25	63.97***	.96	1.04
	3	남편정서지지	-.16	.29	.28	50.64***	.89	1.12
	4	비공식도구지지	-.11	.30	.29	39.94***	.93	1.08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	1	자아탄력성	.22	.07	.07	31.02***	.95	1.05
	2	자녀성적	.20	.12	.11	25.75***	.98	1.03
	3	남편정보지지	-.11	.13	.12	19.07***	.96	1.04
자녀와의 관계 관련 스트레스	1	자아탄력성	.38	.18	.18	82.60***	.96	1.05
	2	남편정서지지	-.19	.23	.23	56.59***	.89	1.12
	3	자녀성적	.11	.24	.23	39.61***	.96	1.04
	4	비공식도구지지	-.11	.25	.24	31.47***	.92	1.08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	1	자녀성적	.53	.28	.28	155.29***	.97	1.03
	2	자아탄력성	.13	.30	.29	82.47***	.96	1.04
	3	비공식도구지지	-.16	.30	.30	57.23***	.67	1.49
	4	비공식정보지지	-.11	.31	.31	44.57***	.67	1.50

\*\*\*p<.001

있었다. 남편의 정보적 지지는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하위영역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 본인이 학력이 높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남편이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편이 도구, 정서 및 정보적 지지를 많이 해줄수록 어머니가 하위영역별 양육스트레스를 모두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망의 도구, 정서 및 정보적 지지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비공식망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인구사회학적 변인,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전체 양육스트레스와 하위영역별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변인들의 공차한계 값이 대부분 .70 이상으로 .10보다 훨씬 크고 VIF는 전부 1에서 1.5 사이에 있어 10보다 훨씬 작으므로 공선성의 문제는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7>을 보면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녀성적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탄력성과 자녀성적은 전체 양육스트레스와 하위영역별 양육스트레스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 본인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또 자녀의 성적이 좋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양육과 관련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정서적 지지는 전체 양육스트레스 및 자녀와의 관계와 관련한 스트레스에, 남편의 정보적 지지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망의 도구적 지지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는데, 전체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와의 관계 및 학습기대와 관련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망의 정보적 지지는 학습기대와 관련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어머니 본인의 자아탄력성이었고 자녀성적이 그 뒤를 이었다. 자녀성적은 특히 학습기대와 관련한 스트레스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요인 외에 남편의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 그리고 비공식망의 도구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도 양육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 본인의 자아탄력성과 어머니가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녀의 학교성적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어머니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은 전체 및 하위영역별 양육스트레스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다른 어떤 변인보다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의 경우에만 자녀의 성적이 어머니의 자아탄력성보다 설명력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을 뿐, 전체

양육스트레스와 관계 및 기질 관련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모든 변인 중에서 자아탄력성이 가장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자녀(고혜진, 2005)와 발달장애자녀(Margalit & Kleitman, 2006)를 둔 어머니들이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자아탄력성이 이렇듯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인 변인이라면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아탄력성이 낮은 어머니 집단(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효율적인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의 자아탄력성 증감에 관여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들을 밝혀내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보호요인(예, 취업, 긍정적 부모-자녀관계)은 육성 또는 강화하고 위험요인(예, 빈곤, 스트레스 많은 생활환경)은 제거 또는 약화함으로써 위험집단 어머니들의 자아탄력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가 가족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지체계와 지지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편, 비공식망, 공식망 중에서 남편이 제공하는 지지가 학령기 자녀의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남편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유우영 등, 1998; 전춘애·박성연, 1996; Crnic et al., 1983)의 결과와 일치한다. 남편의 지지 중에서도 특히 정서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는데, 남편의 정서적 지지는 전체 양육스트레스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정보적 지지도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자녀기질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남편, 비공식망, 공식망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경은(2004)도 남편이 실질적 도움을 주는 도구적 지지보다는 정서적 공감에 바탕을 둔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부부간 대화나 갈등의 정도, 부부관계 만족도 등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실제로 남편의 정서적 지지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전춘애·박성연, 1996), 결혼만족도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ersh et al., 2006). 또 남편의 정서적 지지는 어머니들이 양육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줌으로써 그 결과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할 가능성을 낮춰주기도 한다(김경은, 2004). 결국 어머니들이 겪는 양육스트레스가 자녀발달과 가족전체의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대한 남편의 이해와 공감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지지보다는 영향력이 떨어지지만 비공식망의 지지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들은 친척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양육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있었다. 비공식망이 제공하는 지지 중에서는 도구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비공식망의 도구적 지지는 자녀와의 관계 및 학습기대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비공식망의 정보적 지지는 학습기대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비공식망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지는 양육스트레스 감소효과가 거의 없는 정서적 지지였다. 사실, 어머니들은 남편으로부터도 정작 효과가 큰 정서적 지지나 정보적 지지가 아니라 그보다 효과가 적은 도구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남편으로부터는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고 비공식망으로부터는 도구적 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편이나 비공식망과 달리, 공식망이 제공하는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공식망의 지원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로는 공식망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공식망의 지지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강희경·조복희, 1999; 김경은, 2004). 어머니 본인과 가족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식망의 지원서비스가 대폭 보완 내지는 확충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이후에야 공식망이 제공하는 지지의 효과성을 제대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 3. 자녀의 학교성적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자녀의 학교성적이 유일하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중학교 입학에 앞둔 학령기 자녀의 성적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예, 김경신, 1994; 김양희·전세경, 1989).

자녀의 성적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특히 학습기대와 관련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그 다음이 자녀와의 관계와 관련한 스트레스였으며, 자녀기질과 관련한 스트레스는 가장 적게 받고 있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의 어머니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특히 학습기대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자녀의 성적 향상과 명문대학 입학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자녀가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과 사교육에 몰입하는 우리나라 풍토를 생각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학습기대관련 스트레스가 다른 하위영역 스트레스에 비해 전체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오히려 더 낮았다는 것이다. 전체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던 하위영역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였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적보다는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로 인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자녀의 성적이 상위권이라도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성적이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 해도 어머니가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크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빚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자녀성과 관련한 스트레스는 가족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구조적 조건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정범모, 1993) 이 스트레스를 가족 내에서 극복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스트레스는 가족의 틀 안에서 해결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용이한 문제이다. 자녀성적의 문제보다는 어머니-자녀 간 관계의 문제가 어머니에게 더 심각한 스트레스를 안겨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의 틀 안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강화 또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및 그로 인한 가족복지 향상을 상당부분 이뤄낼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결과는 학습기대 관련 양육스트레스에 남편의 지지는 영향력이 없었던 반면에, 이웃이나 친척 등 비공식망의 도구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는 분명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자녀를 돌보는 일뿐 아니라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한 책임도 어머니들이 대부분 담당하고 아버지들은 별로 역할을 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어머니의 정보력'이

‘아버지의 경제력’과 더불어 자녀의 일류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는 세간의 믿음을 일부나마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성적을 제외하고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어떤 변인도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회귀분석 결과와는 달리,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어머니 본인과 남편의 학력 및 직업이 어머니들이 받는 양육스트레스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본인과 남편의 학력 및 직업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가 학력이나 직업 그 자체보다는 이들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예, 자녀성적)의 작용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같은 학벌지상주의 사회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살림살이가 빠듯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부모가 자녀교육에 시간과 노력과 돈을 많이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 실제로 자녀의 학교성적 저조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력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는 자녀성적의 효과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발달을 저해하고 가족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고, 남편이 이해와 공감에 바탕을 둔 정서적 지지를 많이 하도록 복돋아주며,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그러한 방안이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희경(2003).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31-37.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혜진(2005).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의 관계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및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민숙(2002). 자아탄력성, 의사결정 유형 및 성패귀인 유형과의 관계: 애착유형과 생활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인순·김경신(2001). 고3수험생 어머니의 스트레스 인지, 대처 행동 및 심리적 복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2), 65-90.
- 김경신(1994). 대입수험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한국가족학연구회**, 201-236.
- 김경신(1995). 부모와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스 인지, 대처 및 디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2-23.
- 김정은(2004). 취업모의 특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모의 성역할태도, 역할지원체계,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교현·권선중·심미영(2005). 초등학생의 시험스트레스와 신체화증상: 자기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1), 113-126.
- 김기현(2000).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탐색. **한국생활과학회지**, 9(1), 71-84.
- 김리진·윤종희(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직, 사무직 및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2), 47-58.
- 김명자·박선연(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29(1), 203-216.
- 김미옥(2005). 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2, 351-381.
- 김미현·류범숙·신효식(1993). 주부와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손상에 관한 연구: 광주시에 거주하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6), 111-126.
- 김양희·전세경(1989).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25-42.
- 김영순(2007).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이지현(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45-261.
- 남유리(1989).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현아·양수(2005). 초등학생 부모의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 14(3), 323-334.
- 노현정(2004). 취업모와 미취업모 간의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의 차이.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1-11.
-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 문혜련(1999).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 유아의 사회적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 진춘애 ·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박수경(2002). **자폐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연성 · 현은민(2007).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83-94.
- 박영아(2005).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영유아교육연구, 8**, 97-113.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진(1997).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경희(2007). **장애아동 가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양육부담 및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미혜 · 송연숙 · 김영주(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65-183.
- 송연숙 · 김영주(2007). 양육신념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연구. **유아교육, 16(4)**, 107-117.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숙재 · 정문자(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1.
- 안인순(2002). **저소득 편모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인희(1988). **간호사와 여교사의 스트레스 유형과 대처방식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재연 · 유구종(2007).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열린유아교육, 12(5)**, 73-94.
- 옥선화 · 이기춘 · 이기영 · 이순형 · 공인숙(1991). 현대산업 사회에 있어서 40대 중산층 주부가 지각한 가정생활의 제문제. **대한가정학회지, 29(2)**, 135-154.
- 우희정 · 최정미(2002). 초 · 중학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와의 관계. **한국가정과 교육학, 14(3)**, 65-76.
- 유성경 · 홍세희 · 최보운(2004). 가정의 위협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3-408.
- 유우영 · 최진아 · 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윤기영(1997).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학부모됨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7(2)**, 161-181.
- 이은혜(1997).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자녀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아동의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35(3)**, 31-45.
- 이인숙(1994). **도시전업주부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 · 장병욱(1987). 기혼여성의 의사소통 유형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6**, 215-242.
- 이후승(2003).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상희(2006).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문(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4)**, 143-161.
- 장휘숙(2001). **사회정서발달: 정신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113-127.
- 전귀연 · 김수경(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1)**, 35-51.
- 진춘애 · 박성연(1996).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진춘애 · 박성연(1998).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95-105.
- 정범모(1993).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 서울: 나남출판사.
- 정소희(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아탄력성, 학업능력지각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경은(2005). **아동의 학대경험과 자아탄력성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수준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영림 · 윤혜진(200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만 4세-6세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 특성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6(4)**, 85-101.
- 최승순(1987). **가족유형에 따른 주부의 우울성향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편은숙(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머니 역할인식과 자녀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1990a).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4)*, 298-301.
- Abidin, R. R.(1990b).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

- 407-412.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Kelley, J.(1994).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How a first child changes a marriage*. Delacourt Press.
- Block, J. H.(2002). Personality as an affect-processing system.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H. & Block, J.(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M. M., Basham, R. B.(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Dumas, J. E. & Gibson, J. A.(1990). Behavioral correlates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conduct-disorder children: II. Systemic effects involving fathers and sibling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877-881.
- Dumas, J. E. & LaFreniere, P. J.(1993). Mother-child relationships as sources of support or stress: A comparison of competent, average, aggressive, anxious dyads. *Child Development*, 64(6), 1732-1754.
- Jacobson, D. E.(1986). Types and timing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250-264.
- Kersh, J., Hedvat, T. T., Hauser-Cram, P., & Warfield, M. E.(2006). The contribution of marital quality to the well-being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0(12), 883-893.
- Kloh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1079.
- Koeske, G. F. & Koeske, R. D.(1990).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al stres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0(3), 440-451.
- Laster, J. F.(1981).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ress. *Journal of Home Economics*, 73(3), 17-19.
- Lee, M-Y, Chen, Y-C, Wang, H-S., Chen, D-R.(2007).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in parents of children with Tourette syndrome.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5(3), 165-174.
- Lempers, J. D., Clark-Lempers, D., & Simons, R. L.(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39.
- Magill-Evans, J. & Harrison, M. J.(2001). Parent-child interactions, parenting stress, and developmental outcomes at 4 years. *Children's Health Care*, 30(2), 135-150.
- Margalit, M. & Kleitman, T.(2006). Mothers' stress, resilience and early intervention. *European Journal of Special Needs Education*, 21(3), 269-283.
- Melson, G. F., Lad, G. W., Hsu, H.(1993). Maternal support networks, maternal cognitions, and young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4, 1401-1417.
- Quittner, A. L., Glueckauf, R. L., Jackson, D. N.(1990). Chronic parenting stress: Moderating versus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66-1278.
- Secco, M. L. & Moffatt, M. E. K.(2003). Situational, maternal, and infant influences on parenting stress among adolescent mothers.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26, 103-122.
- Silver, E. J., Heneghan, A. M., Bauman, L. J., & Stein, R. E. K.(2006). The relationship of depressive symptoms to parenting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in inner-city mothers of young children.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10(1), 105-112.
- Skok, A., Harvey, D., & Reddihough, D.(2006). Perceived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among mothers of school-aged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31(1), 53-57.
- Tellegen, A.(1985). Structures of moo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In A. H. Tuma & J. D. Maser (Eds.), *Anxiety and the anxiety disorders* (pp. 681-706).

Hillsdale, NJ: Erlbaum.

Wahler, R. G.(1980). The insular mother: Her problems in parent-child treatment.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3*, 207-219.

Wanamaker, C. E. & Glenwick, D. S.(1998). Stress, coping and perceptions of child behaviour in parents of preschoolers with cerebral palsy. *Rehabilitation Psychology, 43*, 207-213.

Webster-Stratton, C.(1988).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child deviance: Roles of parent and child behaviors and par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909-915.

Webster-Stratton, C.(1990). Stress: A potential disruptor of parent perceptions and family interac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302-312.

- 접수 일 : 2008년 09월 12일
- 심사 일 : 2008년 10월 01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11월 12일